가수 KCM, '데뷔 20주년'에 방향성 바꾼 이유

'흑백사진' 조영수 작곡가 타이틀 호흡
음악적 고민 "듣기 편안한 보컬 선택"
"내 목소리 좋아…90대에도 노래할 것"

"한 직업을 갖고 20년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후회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후회되는 것마저 감사해요."

가수 KCM(41·강창모)이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밝힌 소회다. 거친 외모와 상반되는 미성의 소유자인 그는 '흑백사진', '은영이에게', '스마일 어게인(Smile Again)' 등 발라드곡으로 2000년대를 수놓았다. 전성기가 이어지다 활동이 뜸해지고 부침을 겪기도 했다. 지난 2021년 MBC TV 예능물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로 다시 재조명 받으며 새 전성기를 맞이했다.

KCM은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하며 정규 앨범 '우리들(US)'을 발매했다. 그간 여러 방면으로 음악 활동을 해왔지만 디지털 싱글 형태가 다수였다. 그는 "기념비 같은 앨범을 만들고 싶었다"며 피지컬 앨범 자랑했다. "정글을 맨몸으로 뛰어다니듯이 상처 입으면서 나온 앨범이에요. 쉽지 않았어요. 요즘 CD 자체를 듣지 않잖아요. 다들 많이 말리긴 했는데 전 테이프 시대 때부터 해온 가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K팝이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발라드는 이면에 가려지는 형국이다. KCM은 발라드 가수로서 현 음악 시장에서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늘 고민하고 있다. "이 앨범이 대박 나서 일확천금으로 팔자를 바꿔야겠다 이런 건 없어요.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번 음원 발표를 했어요. 잘 안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었죠. 선배들에게 고민을 많이 얘기했어요. 앨범을 낼지 수십 번 고민했고요."

"현진영 형은 '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노래해야 한다고 했어요. 선물한다고 생각하라는데 그 말이 확 와닿았어요. 팬들이 자기 사연을 소설처럼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혼자서 꺼이꺼이 운 적도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요. 오래된 팬 중에 몸이 안 좋은 분이 있으신데 나만 생각하는 디테일함을 알아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현진영 이 형이 그런 말을 해주니까 제가 피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강렬했어요. 쉬지 않고 꾸준히 1년에 한 곡이든 두 곡이든 앨범을 발매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최종 목표가 됐어요."

KCM 음악 안에서도 고민이 충돌했다. 호소력 짙은 고음이 시그니처지만, 듣기 편한 음악을 선호하는 추세다. 두 갈래 길에서 고민을 거듭한 그는 편안함을 선택했다. "김범수 형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가 잘하는 건 많이 보여줬다. 가수들이 이런 걸 못 내려놓는데 네가 편안한 방향은 남들이 편하지 않다. 내려놓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서 우주 달나라고 가고 싶은 건 내려놨어요.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음악이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고민은 이번 앨범에 반영됐다. KCM의 대표곡을 함께한 조영수 작곡가가 타이틀곡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를 작업했다. KCM의 음색이 특화된 미디엄 템포 팝 발라드곡이다. 서정적인 멜로디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보컬이 입혀졌다. 원래 MSG워너비의 곡으로 만들어졌지만, 발라드를 원하던 KCM의 품으로 갔다. "특이하게 곡에 건반이 없어요. 그 안에서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그걸 깊게 생각할수록 곡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들었어요. 리스너 분들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조영수 형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불렀어요. 저의 의도는 거의 없고 신인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웃음)

타이틀 외 11곡은 모두 KCM이 직접 쓴 곡이다. 혹자는 KCM을 예능 잘하는 가수로 알고 있을 테지만, 그는 싱어송라이터다. 김범수, 왁스, 더 원 등 유명 보컬리스트들의 곡을 작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지 않았다고. "누가 '나 KCM한테 곡 받았다'고 하면 비웃을 거 같다. 그 웃음조차 싫어서 조용히 한다"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만들어놓은 건 없어지지 않지 않나. 시간이 지나면 깊이가 생기고 구전이 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KCM은 자작곡으로 이번 앨범을 채우며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대부분 이전에 싱글로 발표했던 곡이다. 신곡인 1번 트랙 '우리들(To my fans)'는 지난해 진행한 20주년 콘서트에서 공개한 노래다. 20년간 곁을 지켜준 팬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다. '오늘도 맑음(Dear Dad)'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쓴 곡이다. '새벽길'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쓴 곡이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지쳐 있을 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당시에는 트라우마가 걱정될 정도였지만, 지나보니 웃으면서 노래할 수 있는 의미 깊은 곡이다. "내 이야기를 담은 앨범을 만드는 걸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20주년에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며 "이 앨범 만족도는 100%"라고 했다.

KCM에게 이번 앨범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수로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전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어요. 예전부터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였어요. 누구나 따라 하고 싶은 노래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나만의 시그니처 색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공존했죠. 리스너 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를 하자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2의 KCM은 부담스럽기보다 편안한 아티스트가 되고자 해요."

음악적 색깔은 조금 변할지라도 KCM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뚜렷한 목표보다 꾸준히 노래하는 것을 꿈꾼다. "전 제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90대가 돼도 무대에서 노래해 보고 싶어요. 걸을 힘만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요?"

배우 고현정, 이혼 언급 "신세계 아니라 다행"

배우 고현정이 이혼까지 언급하며 입담을 뽐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는 '대체 왜 이렇게 루머가 많은 거야 현정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싱어송라이터 정재형은 고현정에게 다작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고현정은 "내가 왜 작품을 많이 안 하겠냐. 안 들어온다"고 답해 웃음을 안겼다. "이것은 정말 모두가 오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재형은 "이제 (작품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너무 신비롭다. 사적인 모습들을 사람들이 모른다. 편한 사람들과 나와서 말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전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부연했다.

고현정은 "왜 그럴까. 거기 시집 갔다 와서 그러는 거 아니냐"며 이혼을 언급했다. 정재형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조심스러워할 것"이라고 했다.

고현정은 "그 이야기가 뭐가 조심스럽냐. 남들 다 갔다 오는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매몰차게 정말 아무 미련 없다는 듯 결혼한 모양새가 좀 있긴 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다"고 돌아봤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파파라치 컷이 생기기도 했다. 나만 생각할 수 없었다. 사실 그런 모습으로 사진 찍히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정재형은 "아마도 사람들도 알 것"이라고 말하자 고현정은 "아. 그러실까요"라고 답했다. 정재형은 "사람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했던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며 고현정을 위로했다.

고현정은 촬영 중 잠시 쉬는 시간에 정재형이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 감탄했다. 그러자 정재형은 "현대백화점에 있었다"고 말했다. 고현정은 "다행이다. 신세계 아니라서. 오빠, 고마워요"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고현정은 1989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으로 뽑히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1995년 SBS TV 드라마 '모래시계'로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고현정은 그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결혼하면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 부회장과의 사이에서 1남1녀를 뒀으나 결혼 8년 만인 2003년 합의 이혼했다. 2005년 SBS TV 드라마 '봄날'로 연예계에 복귀했다. 이후 '여우야 뭐하니'(2006) '히트'(2007) '대물'(2010) '여왕의 교실'(2013) '리턴'(2018)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2019) '마스크걸'(2023),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2009) '여배우들'(2009) 등 다양한 히트작을 내놨다.

뉴진스 '디토'·정국 '세븐' 뮤비, 美 '클리오 뮤직 어워즈' 대상 후보 올라

'세계 3대 광고제' 클리오가 주관하는 음악 시상식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대표곡 '디토(Ditto)' 뮤직비디오와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첫 공식 솔로 싱글 '세븐'의 뮤직비디오가 '광고계의 오스카상'이자 '세계 3대 광고제'인 클리오(Clio)에서 주관하는 '2024 클리오 뮤직 어워즈(Clio Music Awards)'에서 대상(Grand) 수상 후보(Short List)에 올랐다.

17일 최근 발표된 '2024 클리오 뮤직 어워즈'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뉴진스 '디토' 뮤직비디오와 정국 '세븐' 뮤직비디오는 '필름&비디오(Film&Video)' 부문 대상 수상 후보에 포함됐다. 전 세계에서 출품된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디토'와 '세븐'을 비롯한 단 8편이 이 부분 대상 수상 후보로 지목됐다.

'클리오 뮤직 어워즈'는 광고제가 주최하는 시상식인 만큼 기존 음악 시상식과 수상자를 선정하는 관점이 다소 다르다. 프로덕션 디자인, 마케팅 등 미학적인 측면에 방점을 둔다.

'클리오 광고제'는 1959년 미국 클리오 사(社)가 만든 광고제로 출발 당시엔 뉴욕 중심으로 시상했으나 1965년부터 국제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광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의사 소통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인정하고 포상한다. '뉴욕 페스티벌', '칸 라이언즈'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 중 묶인다. 미디어 플랫폼 변화에 따라 수상 대상이 다양해졌다. 2014년에 뮤직비디오도 수상 대상이 되는 '클리오 뮤직 어워즈'를 만들었다.

'디토' 뮤직비디오는 영화·광고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제작했다. 민희진 어도어(ADOR) 총괄 프로듀서는 기존 K-팝 뮤직비디오와는 결이 다른 신선한 창작물을 원했고, 당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생소했던 신우석 감독에게 연출을 맡겼다. '디토' 뮤직비디오는 버니즈(Bunnies.팬덤명)와 뉴진스의 애틋한 관계를 입체적 연출로 담아 2편으로 제작됐다. 기존 K-팝 뮤직비디오의 고정관념을 깬 스토리텔링과 영상미로 인기를 누렸다. '디토'는 지난해 최고 K팝 히트곡으로 국내 주요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휩쓸었다.

정국의 '세븐'은 상대방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온갖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정국의 모습을 그렸다. 각종 고난에도 사랑을 호소하는 정국의 진심은 통해 마침내 상대역을 연기한 한소희가 그에게 손을 건넨다. 두 사람이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으로 뮤직비디오는 마무리된다.

열차 안과 위를 각각 걷는 한소희와 정국을 한 장면에 병치하거나, 정국이 고공 리프트를 타는 장면 등에선 독특함이 더해진 카메라 무빙이 눈길을 끌었다. 해리 스타일스, 카디비 등과 작업한 브래들리 & 파블로(Bradley Bell and Pablo Jones-Soler)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세븐' 피처링에 참여한 라토도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필름&비디오(Film&Video)' 부문 대상 수상 후보엔 뉴진스 '디토'와 정국 '세븐' 외에 루이 암스트롱 "비지트 프롬 세인트 니콜라스' 애즈 리드 바이 루이 암스트롱('Visit From St. Nicholas' As Read By Louis Armstrong), 프랑스 싱어송라이터 겸 뮤직비디오 감독인 우드키드(Woodkid)의 '리액터(Reactor)', 조지아 출신 밴드 '므그자브래비(Mgzavrebi)'의 '왈츠(Waltz)' 등도 올랐다.

한편, 이 외에도 뉴진스가 협업한 여러 작품이 '2024 클리오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뉴진스가 유튜브 쇼츠와 함께 한 '#ImSuperShy' 캠페인이 팬 참여(Fan Engagement) 부문의 디자인 카테고리에서 은상을 차지했다. 또한, 뉴진스가 참여한 코-크 스튜디오 글로벌 앤섬(Anthem) '비 후 유 아(리얼 매직)(Be Who You Are(Real Magic))'의 영상은 필름&비디오 내 음악 사용(Use of Music in Film & Video) 부문의 5분 이상 분량(Five Minutes and Over) 카테고리에서 은상, 필름&비디오 기술(Film & Video Craft) 부문의 비주얼 이펙트 카테고리에서 동상을 받았다.

이번 '클리오 뮤직 어워즈' 시상식은 오는 3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누이하우스 할리우드(NeueHouse Hollywood)에서 열린다.

'심사 달인' 가수 임재범 삼행시 심사평도 '으뜸'

JTBC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싱어게인3')의 파이널 2차전이 시작된다.

17일 JTBC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싱어게인3' 마지막 회에서는 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파이널 2차전 자유곡 라운드가 펼쳐진다. 특히 톱7 강성희, 신해솔, 소수빈, 홍이삭, 추승엽, 이젤(EJel), 리진(leejean)의 무대가 현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싱어게인3'에서 다수의 라운드를 거듭하며 함께 성장해 온 톱7은 이번 라운드에서 각자 자신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곡을 선곡한다.

제작진은 "또한 '싱어게인3'에서 심사의 달인으로 거듭난 가수 임재범이 화룡점정을 찍는다. 톱7 중 한 가수의 이름으로 삼행시 심사평을 남겨 현장을 환호케 했다"고 귀띔했다.